

전남대 의대 374점, 조선대 의대 370점 예상

광주진학부장협, 6월 모의평가 가채점 ... 예상보다 어려워 주요대학 합격선 지난해보다 10~20점 낮아질 듯

전남대에 진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 수험생은 316점 이상, 이과는 290점 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지난 2일 치른 광주 고교 3학년 수험생 1만3600여명의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400점 만점 기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의예과는 374점을 받아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위권인 서울대에 지원하려면 인문계열은 383점 이상, 자연계열은 364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6월 모의평가는 전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국어·영어·수학(나)형 영역의 경우 전년도보다 채점 난이도가 높았다는 게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분석이다. 탐구 과목도 화학1·생명과학1이 지난 수능에 비해 어려워 선택 과목간 유·불리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6월 모의평가가 본 수능의 출제 방향,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능은 "불수능" 기조에서 탈피,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로진학지원단 등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전남대의 경우 영어교육과에 지원하려면 350점은 돼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국어교육과 346점, 경영학부 340점, 심리학과 336점 등으로 분석했다.

진로진학지원단 등이 전년도 같은 기간 치러진 6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전남대 영

어교육과 375점, 국어교육과 373점, 경영학부 367점 등으로 예측했던 만큼 지원 가능 예상 점수가 낮아졌다.

이과 수험생도 의예과 374점, 치의학과 368점, 수의예과 342점, 수학교육과 338점, 간호학과 329점, 전기공학과 329점 등으로 지원 가능 점수를 예상했다.

조선대는 의예과 370점, 치의예과 364점, 간호학과 321점, 영어교육과 321점 등으로 분석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362점, 광주교육대는 인문계 352점, 자연계 340점대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진로진학지원단 등은 내다봤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의 지원 가능 점수도 예측됐다. 서울대는 의예과 386점, 컴퓨터공학부 374점, 경제학부 392점, 국어교육과 387점, 사회학과 390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점쳐졌다.

연·고대는 인문계열에서는 370점 내외, 자연계열 356점 안팎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의과대 382점, 경제학과 384점, 국제학부 378점, 미디어학부 383점, 영어교육과 378점이 커트라인이고 연세대는 경제학부 384점, 의예과 383점, 교육학부 377점, 건축공학과 362점 등이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되며 채점 결과는 23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전남 주요대학 6월 모의평가 가채점(원점수 400점 만점)

대학	문과		이과	
	모집단위	지원가능점수	모집단위	지원가능점수
전남대	경영학부	340	수의예과	342
	경제학부	338	의예과	374
	교육학과	336	전기공학과	329
	영어교육과	350	치의학과	368
	경찰행정학과	314	간호학과	321
조선대	교육학과	304	수학교육과	303
	국어교육과	316	의예과	370
	영어교육과	321	치의예과	364
광주교대	문과	352	이과	340
광주과기원				362

■ 서울 주요대학 6월 모의평가 가채점 배치표

대학	문과		이과	
	모집단위(군)	지원가능점수	모집단위(군)	지원가능점수
경희대	경영학과	365	수학과	342
	경제학과	364	의예과	380
	국어국문학과	358	치의예과	375
	경제학과	384	사이버국방학과	374
	미디어학부	383	의과대학	382
고려대	영어교육과	378	컴퓨터학과	360
	경영대학	394	건축학과	370
	사회학과	390	생명과학부	375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391	의예과	386
	경영학	371	소프트웨어학	362
	글로벌경영학	378	수학교육	355
성균관대	영상학	366	컴퓨터교육	351
	경영학과	387	기계공학부	368
	교육학부	377	의예과	383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382	치의예과	38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06:24
해질 19:44 달지기 20:46

한풀 꺾인 더위

흐리고 일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림	18/24	보성	흐린뒤비	17/22
목포	흐림	18/23	순천	흐린뒤비	18/23
여수	흐린뒤비	18/21	영광	흐림	17/24
나주	흐림	17/25	진도	흐림	17/23
완도	흐림	17/23	전주	흐림	18/24
구례	흐림	17/24	군산	흐림	18/22
강진	흐림	18/24	남원	흐림	17/24
해남	흐림	17/24	축산도	흐림	17/21
장성	흐림	17/24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부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서부	북동~동	1.5~2.5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57	08:09
	15:01	20:15
여수	09:49	03:40
	22:23	15:48

◇ 주간 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8/27	18/26	19/29	19/30	19/29	19/29	19/29

전과 있는 쇠파이프 강도인데 기각이라니 ...

법원 편의점 2인조 강도 영장 기각 ... 경찰 "납득 안가"

광주광산경찰이 지난 2일 오전 체포한 2인조 편의점 강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풀러 2인조 강도범이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심야에 여중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이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5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안모(18·송모(18)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의 이유로 안씨 등 2명이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 등 2명의 나이가 만 18세인데다 가족의 보살핌 아래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범행 증거

를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므로 증거 인멸 우려 또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자체가 없었던 데다, 이들 모두 도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러 안씨, 송씨 모두 강도 전과를 포함해 10차례 안팎의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피의자들이 구금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영장 발부를 따질 땐 피해자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채용 비리' 광주 사학법인 이사장·법인실장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광주의 한 사학법인 이사장과 법인실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지망생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친인척으로

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 지망생은 채용이 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법인 사무실과 학교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해 교사 채용 과정과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선교사 사택' 보존 싸고 갈등

양림동주민회 "역사·문화 자산" 기독교병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광주시 남구 양림동 기독교병원에 자리한 '선교사 사택'이 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주민자치회가 보존측 마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 측 사유재산이지만 양림동이 근대문화유산의 보물로 자리매김한데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호랑기사나루 앞 선교사 사택 철거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회는 "광주기독교병원이 직장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선교사 사택을 철거하려고 한다"며 "관리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남구청은 철거 움직임에 따른 갈등 조

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회는 이어 "1905년 남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한 양림동은 100년의 세월을 오롯이 담은 근대역사문화마을"이라며 "서양인 선교사가 지은 건물부터 전통의 맛을 보존한 한옥까지 조화를 이룬 마을 모두 주민의 자람이자 광주의 역사·문화 자산"이라며 철거에 반대했다.

철거 위기에 놓인 선교사 사택은 지난 194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유지에 세운 무허가 건물이라서 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했다. 총 4채로 완공된 선교사 사택은 현재 1채만 남았고 건물 외벽 일부가 고유 방식으로 지어져 보존 가치가 높다는게 주민회 측 설명이다. 반면 기독교병원 측은 1960년대 지어진 건물로, 선교사 사택이 아닌 병원 진료과장 숙소여서 보존



광주시 남구 양림동 기독교병원 내에 1940년대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선교사 사택'을 병원 측이 허물고 어린이집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 지켜야 할 근대유산'이라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가치가 높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병원 측은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을 남구청에 신고하고 내부 철거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7일에는 중장비를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당분간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기독교병원은 이와 관련, "관련법에 따라

기독교병원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올해 안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1억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라면서 "애초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을 검토했으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철거 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너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목 : 스미일 / 라석 / 라석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장애,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증·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